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세계 전자제품시장 활황세 지속

세계 전자제품 시장규모는 지난해 7,210억 달러에서 오는 96년에는 9,400달러로 증가, 연평균 9.2%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전자협회(AFA)가 내놓은 '세계 전자전망 1994'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비롯한 최종전자장비의 수요는 향후 3년간 연평균 7.2%의 성장세를 기록 오는 96년에는 6,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연평균 14.9%의 신장세를 보이면서 전자제품 수요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반도체 수요도 13.5%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수요는 최종전자 장비 수요와는 별도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비자용 전자제품수요의 경우 연평균 6.3%증가하는 데 그쳐 가장 낮은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AEA측이 향후 전자제품시장을 이같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올해 세계 기술시장의 수요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 이어 내년에는 지난 '89년이후 가장 높은 신장세를 기록하고 '96년에도 성장률이 10.2%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유럽이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세계 전자제품 수요전망을 낙관하게 하는 주요인이다.

AEA가 2년여에 걸쳐 조사분석한 이 보고서

에서는 '96년까지 수요증가폭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으로 연평균 13.5%의 신장세를 보이면서 세계시장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 10%에서 '96년에는 1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연평균 7.4%, 일본 5.9%, 그리고 유럽이 5.2%의 수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2. UR서비스협상 5월 본격화

지난해말 타결짓지 못한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협상이 오는 5월중순부터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열릴 협상에서는 해운, 통신, 금융서비스 및 음향영상부문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우선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지난해 협상시 대부분 국가들이 데이터전송 등과 같은 부가 가치통신부문에 한해 시장개방을 추진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전화사업 등 기초통신 서비스분야의 개방문제를 집중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통신분야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국측은 오는 '96년 4월 15일까지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독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국의 통신체제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측은 미의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금

용서비스분야 공정무역법을 활용,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금융기관과 동등한 시장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내 영업활동을 제한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밖에도 음향영상분야에서는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간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3. 미, 중국에 최혜국대우 연장 확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간 인권문제를 최혜국대우(MFN)연장조치와 연계시켰던 대중국정책을 사실상 포기 오는 6월초 중국에 대해 영구히 최혜국지위를 부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뉴욕 타임즈(NYT)지는 클린턴 미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지난 '93년 대통령행정명령으로 결정한 최소한의 인권기준만 충족시킨다면 해마다 최혜국 대우연장문제를 놓고 중국측을 위협하는 정책을 완전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행정부측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인권문제를 갖고 최혜국대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최종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선거운동시 부시정부의 대중국정책을 비난했던점과 지난해 서명한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중국측에 최소한의 인권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정치범의 숫자파악 및 처우를 개선하고 몇몇 유명 반체제인사 및 가족의 해외출국을 허용하면 영구히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행정부측은 중국이 지금까지도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최혜국 대우문제를 협상카드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

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4. 미국 인텔사 러, 컴퓨터시장 '석권'전략

미 인텔사는 러시아 컴퓨터시장 장악을 주요한 전략목표로 정하고 러시아 및 다른 구소련공화국에 판매망을 크게 확충하고 AS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인텔은 또 이들지역내 지사망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인텔이 이처럼 러시아 등지에서 영업활동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것은 이 지역에서의 컴퓨터 수요의 확산과 함께 경쟁업체의 추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텔은 현재 러시아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8086프로세서가 내장된 컴퓨터의 경우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으나 IBM, 애플매킨토시, 모토롤라 등 경쟁사가 파워 PC개발을 통해 인텔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텔은 이에 따라 러시아 컴퓨터시장에서의 수성전략의 일환으로 AS망을 설치, 운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인텔은 스페어부품을 유럽에서 우편으로 조달 공급해왔으나 러시아 등 CIS(독립국가연합)내에 유지보수센터를 개설해 고객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딜러 및 디스트리뷰터망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광고선전도 늘리기로 했다.

5. 일본, 영상정보산업 2천년엔 25조엔시장

일본의 영상정보산업이 오는 2천년에는 약 25조엔, 2015년에는 71조엔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공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의 신영상정보산업간담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처리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영상기술이 원래 오락에서부터 여러가지 산업분야로 진전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영상정보산업간담회측은

자국 영상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단지 형성 등 사회자본 정비를 비롯,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각종 제도의 정비, 인재육성, 기술표준화와 같은 사업들을 전개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종전의 영상기술이 TV, 영화 등 주로 오락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나 최근에는 오락은 물론 멀티미디어 분야에 이르기까지 질적·양적인 급신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퍼스널 컴퓨터(PC)의 보급으로 사무부문의 영상정보화도 발달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출판 등과 같은 종이매체 미디어들과 음성·데이터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보 산업분야에서도 영상정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의료·교육·방범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영상정보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산업중 영상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여기에 영상관련 하드웨어 분야를 포함시켜 시장규모를 측정했다.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은 오는 2천년까지 연간 3.2%, 2015년까지는 연간 2.4%로 가정했다. 그 결과 GNP대비 시장규모는 2천년에 4.2%, 2015년에 8.3%에 달할 것으로 각각 예측됐다.

6. 광폭TV 소형화 급속진전

일본의 올여름 광폭TV시장엔 20인치·16인치 등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기종들도 잇따라 선보일 전망이다.

지금까지 광폭TV는 24인치이상의 대형기종을 중심으로 상품화가 실현됐으나 매출이 예상밖으로 호조를 띠며 따라 일본 TV메이커들이 소형사이즈 발매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광폭TV의 장점이 소비자들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고 유통사이드에선 이들을 겨냥한 소형상품의 발매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광폭TV의 소형화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광폭TV판매는 지난해 가을이후 급증 93년중 출하대수는 83만대에 달했으며 올해는 3~4배가량 증가한 100~1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TV메이커들은 기업체들의 여름보너스를 겨냥 신제품을 발매할 예정인데 최근까지 2~3사가 20인치를 1사가 16인치의 출하를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폭TV는 그 속성장 대형기종만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 32인치와 28인치를 중심으로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샤프와 일본비터가 24인치를 발매하면서 소형기종도 상품화가 가능함을 보여줬다. 작은 기종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매출이 급신장한 것이다.

최근 2~3년동안의 전체컬러TV시장 흐름은 수요가 대형기종에서 중·소형 기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가 광폭TV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16인치와 20인치의 발매는 이같은 시장흐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올해 일본의 컬러TV수요는 820만대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24인치이상의 대형기종은 330만대 그리고 중·소형기종은 49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7. 중국, 통신부문에 외자 유치나서

중국은 금년에 전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36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우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국제통신업 부문에 있어 막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통신시장으로 부상했다.

이 회의에서 주부부장은 일부 외국파트너 및 다수의 유명기업들과 기술협력프로젝트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토의를 벌일 계획이다.

세계의 유력한 통신기업들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해외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 중국의 외환매매율

(중국인민은행 발표)

통 화 명	전신환 매입(인민원)		전신환·현찰매도	
	3월 17일	3월 18일	3월 17일	3월 18일
100 미달러	867.85	867.74	872.19	872.08
100 영파운드	1,298.10	전일동	1,304.60	전일동
100 홍콩달러	112.34	112.32	112.90	112.88
10만 일본엔	8,173.53	전일동	8,214.51	전일동
100 서독마르크	511.73	〃	514.29	〃
100 불프랑	150.41	〃	151.17	〃
100 스위스프랑	605.93	〃	608.97	〃
100 네덜란드길드	455.37	〃	457.65	〃

중국은 오는 2천년까지 전화 1억회선을 보유함으로써 자국 전화시스템을 세계 최대규모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젝트는 1년 앞당겨 공사가 완료됐고 6평방 KM의 제2단계 프로젝트도 시기를 앞당겨 착공됐다고 판 대변인은 밝혔다.

8. 상해 자유무역지구 경제활동 활발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최대의 자유무역지구인 상해 웨이가오차오 자유무역지구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판 수밍 관리위원회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2월 30건의 프로젝트가 이 지구에서 승인됐으며 여기에는 1,690만달러의 투자자금이 관련돼 있다. 이 가운데 14건의 프로젝트가 외국기업에 의해 출자되고 있다.

금년 1~2월사이에 이 지구의 수출입총액은 5,430만달러를 넘어섰다고 판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1억 1,700만달러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이 여기서 제조됐고 이 지구에 보관돼 있는 상품도 470만달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0년 6월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 4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이 지구는 현재까지 854건의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며 여기에 관련된 투자자금은 21억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이 지구에서는 3억 달러가 넘는 수출입상품을 처리했다.

한편 이 지구는 10평방KM의 면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4평방KM를 커버하는 제1단계 프로

9. 상해방송TV장비사 전자부문 최다 매출 올려

중국정부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100대 전자기업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연간 35억 7,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상해방송 및 TV장비사가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북경레전드컴퓨터그룹, 창홍전기사(사천성), 남경라디오부품공장(강소성)이 2·3·4위를 기록했다.

전자공업부에 의해 발표된 '94 100대 전자기업의 선정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100대 전자기업의 연간매출총액은 730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58.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전자공업 총매출액의 6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22개에 달했다. 또한 100대기업 모두 연간 매출액이 1억 9,000만원을 넘어섰다.

한편 금년도 100대 전자기업 가운데 전자스위치보드 생산기업과 컴퓨터기업이 대폭 늘어났으며 100대 기업중 30개 기업이 자본재를 생산하는데 참여하고 있어 그 비중이 전년도보다 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연안성에 위치한 기업들이 100대 기업의 60%를 차지함에 따라 지역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동성과 강소성에 소재한 기업도 40개에 달했다.

10. 아·태지역 고도성장 지속

올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태평양경제협력회(PECC)가 연례 경제보고서에서 밝혔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해 이 지역의 평균경제성장률 3.8%보다 높은 것으로 미국의 경기회복과 일본경제의 침체탈출이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져 '95년중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아·태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PECC의 로렌스 클라우스연구원은 지난해 아·태지역 주요 18개국은 89년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은 5.8%에 달한다고 밝혔다.

클라우스연구원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80년대 후반과 같은 물가불안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안정성장세는 내년까지 지속, '94년과 '95년은 아·태지역에 있어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태지역 각국의 경제성장은 교역확대로 연결 지난해 이 지역의 총교역에서 역내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기록했다고 클라우스연구원은 전했다.

<75page에 이어서>

이때문에 판매점의 이익은 감소되고 있고 메이커의 채산도 악화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저의 가격에 대한 불신감이다. 점포에서는 60%이하, 70%이하라는 표시도 쉽게 볼 수 있어 표준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

PEC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평균 25%에 달했던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올해도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13.4%보다는 낮지만 10%와 8.5%를 각각 기록 역내 다른 국가들의 수출증가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올해 8.1%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싱가포르의 성장률도 각각 7.6%, 7.0%로 전망됐다.

또 미국은 지난해의 3.0%보다 높은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멕시코의 성장률은 각각 1%, 2.6%로 조사됐다.

11. AFTA 전면수정 협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 6개국은 다음달 22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비공식 ASEAN경제장관회의를 개최 동남아 자유무역지역(AFTA)내용을 전면수정하는 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일경산업신문이 싱가포르발로 보도했다. 태국의 스파차이 부수상은 이번회의에서 수정된 역내 자유화구상안을 밝힐 계획인데 그 내용은 자유화 실시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는 외에, 제외품목을 최소한으로 하고, 최종적인 역내 관세인하 목표를 제로로 설정하며, 신규회원국 자격을 마련하고, 환경·인권과 무역문제에 대해선 ASEAN측 행동을 통일하자는 것 등으로 돼 있다.

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최근 스미토코(주우) 3M은 실제가격에 가까운 가격을 설정한 신제품을 발매함과 동시에 현행품의 가격을 4월 30일부로 오픈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소니도 4월 10일에 발매하는 V시리즈의 가격을 종래품에 비해 20~30% 인하했다.